

대한상의 브리프

녹색기술센터
이수경 선임연구원, 이은미 연구원

제145호 2021년 4월 5일



편집자주

오는 5월 말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정상회의 개요, P4G의 개념과 배경, 주요 파트너십 사례를 정리해보고 이번 정상회의가 기업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4G 정상회의 개최와 시사점

P4G 2차 정상회의가 오는 5월 30일, 31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후 두 번째다. 정상회의는 2년마다 회원국 간 순환 개최되며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한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것이다.

P4G의 출범배경과 이번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자.

P4G 출범배경

P4G는 2017년 9월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출범시킨 글로벌 협의체다. 그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범지구적인 관심은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97년,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38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한 바 있다. 2012년까지 배출량을 5.2% 감축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2001년 미국의 탈퇴와 국가 간 이견으로 인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2015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세계 195개국이 모여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의미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출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17년 9월, 덴마크 주도로 출범
구성	· 국가 : 연대강화 위해 각 대륙별 중견국가 12개국 - (아시아)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 (유럽) 덴마크, 네덜란드 - (중남미)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공 · 기관(UN), 기업(SKT), 시민사회(미래포럼) 등 참여
운영	· 정상회의 개최 · 이사회(23명) 및 사무국(Global hub) 운영 · 각국 국가플랫폼(National Platform) 운영

[P4G 개요]

행사명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2021 P4G Seoul Summit)
기간	2021. 5. 30(일) ~ 31(월)
주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Inclusive Green Recovery towards Carbon Neutrality'
주요 내용	· 개회식, 정상회의, 폐회식 · 기본세션 -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 특별세션 - 해양, 산림, 녹색금융 등 · 비즈니스 포럼 (Business Forum) · 서울선언문 채택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이런 기후변화 대응 속에서 보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P4G는 기존 녹색성장 민관 파트너십 포럼 3GF(Global Green Growth Forum)의 기후변화 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만들어졌다.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이 목표가 된 것이다.

P4G는 UN체제 밖에서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P4G 파트너십의 내용과 특징

P4G는 그동안의 기후변화 체제와는 다른 세 가지 차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다. P4G는 ‘민간기업’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며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한다. 2018년 이후 66개의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둘째,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례를 발굴해 파트너십을 체결·지원한다. P4G는 UN에서 2015년 SDGs로 정한 17개 의제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5개 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도국 P4G 파트너십 사례]

식량·농업		나이지리아 저온저장소 설치
물		베트남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개발
에너지		아프리카 솔라카우(Solar Cow) 파트너십
도시		중남미 탄소배출제로 버스 배치(ZEBRA)
순환경제		방글라데시 순환패션 파트너십

식량·농업 분야 농작물 저온저장소(ColdHubs) 설치, 물 분야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개발, 에너지 분야의 솔라카우(Solar Cow) 등이 그 사례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기반접근법(Investment-based Approach)을 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P4G 사업은 단계에 따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스타트업(Start-up)사업과 타당성이 검증된 후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스케일업(Scale-up)사업으로 나뉘며 스타트업은 최고 10만 불, 스케일업은 최고 100만 불의 자금을 지원한다.

P4G 서울 정상회의 의미와 특징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으로 P4G 5개 분야 기본세션과 특별세션, 비즈니스 포럼 등이 개최된다.

P4G는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몇 안 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이행되는 첫해인 2021년, 그동안 유럽국가들이 주도해온 환경분야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기회가 될 수 있다. G7, G20 정상회의,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 2021년 예정된 중요한 국제회의의 기후변화 논의에서도 앞장설 기회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New Normal에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에 지구촌 모두의 각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대전환의 의미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를 넘어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참여가 기대되는 국제회의다.

P4G 5개 분야 기본세션과 더불어 특별세션이 개최되는 것도 특징이다. 녹색기술, 미래세대, 해양, 산림협력 등 특별세션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와 사례들을 더 넓고 다양하게 공유한다.

정부 외 민간 부분의 참여도 눈에 띄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포럼을 특별세션으로 개최한다. 비즈니스 포럼은 그린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 최근 기업들에게 중요시되고 있는 ESG 경영패러다임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작년에 발표하고 국제사회 기후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P4G 정상회의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발전해온 우리가 ‘기후악당’이라는 일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 NGO 등 다수가 P4G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SK임업은 에티오피아의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하여 P4G 파트너십을 이행하고 있다. SK그룹은 탄소저감을 위한 나무심기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활동영역을 인정받은 바 있다. SK그룹은 탄소중립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을 선언하며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게 P4G 이사회 멤버(SKT)로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트너십 사례]

분야	사업명	참여기관
식량·농업	에티오피아 산림복원사업	SK임업, 산림청 등
물	지능형 누수관리	위플렛 등
에너지	솔라카우 프로젝트	YOLK 등
	탄소배출제로연대	대우조선해양, 해수부 등
도시	메콩델타 IoT 기반 물관리	녹색기술센터 등

이외에 국내 정부출연연구소 최초로 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er)가 참여하는 스타트업인 ‘메콩델타 IoT 기반 수재해/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도 있다.

우리는 P4G를 통해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를 개도국에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공유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녹색 제품과 기술을 해외로 진출시킬 기회로 활용해볼 수도 있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해볼 수 있다. 기업 간 비즈니스에서 녹색기술과 협력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걸음의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우리 기업들이 앞다투어 경영일선에 ESG 실천을 반영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P4G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가 기업의 ESG 경영과 비전 수립, 국제적 연대 강화와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의 연대를 확대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1년 4월 5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9	2020 ^(E)	IMF		OECD	
			2021 ^(P)	2022 ^(P)	2021 ^(P)	2022 ^(P)
한국	2.0	-1.1	3.1	2.9	3.3	3.1
세계	2.8	-3.5	5.5	4.2	4.2	4.0
미국	2.2	-3.4	5.1	2.5	6.5	4.0
중국	6.1	2.3	8.1	5.6	7.8	4.9
일본	0.3	-5.1	3.1	2.4	2.7	1.8
EU	-7.3	-6.8	4.2	3.6	3.9	3.8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8	2019	2020	'20.11월	12월	'21.1월	'21.2월	'21.3월
원/달러	1,100	1,166	1,180	1,117	1,095	1,097	1,112	1,131
원/엔(100엔)	996	1,070	1,105	1,069	1,055	1,059	1,055	1,041
원/위안	166.4	168.6	170.9	169.1	167.6	169.6	172.3	173.8
원/유로	1,299	1,305	1,346	1,321	1,332	1,336	1,345	1,347
유가(Dubai)	69.7	63.5	42.3	43.4	49.8	54.8	60.9	64.4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8	2019	2020	'20.11월	12월	'21.1월	'21.2월	'21.3월
산업생산	1.6	0.6	-0.8	-0.5	-0.3	1.5	0.4	-
소매판매	4.3	2.4	-0.2	-1.5	-2.0	0.0	8.4	-
설비투자	-3.6	-6.2	6.0	5.4	5.3	19.6	7.0	-
수출	5.4	-10.4	-5.4	4.1	12.6	11.4	9.5	16.6
수입	11.9	-6.0	-7.2	-1.9	2.2	3.6	14.1	18.8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